

보도시점 2025. 5. 12.(월) 배포 시 배포 2025. 5. 12.(월) 14:00

차세대 중형 인공위성(농림위성) 개발 현장 방문

- 송미령 장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여 농림위성 개발현장 점검 및 현안 논의
- 차세대 중형 인공위성, 타부처 협업으로 농업·산림 분야에도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12일(월)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농림위성(차세대 중형 인공위성 4호) 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우주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우주연구원 등 개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림위성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진 개발 현장 점검을 통해 내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개발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위성정보 취득기관과 정책활용기관 간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농림위성의 농업 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식량안보 대응 및 수급 조절, 재해 대응 등 농림위성을 통한 빈틈없는 농업 모니터링 활용, 사용자 중심의 농지·산림지 위성영상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연 (044-201-2451)
		담당자	사무관	우미옥 (044-201-2452)